

# 민주, 5·4전대 새 강령 '중도주의' 부활 시각자

친노·주류 "현행 유지" 비주류 "전면 수정"

당 정체성·노선 재정립 놓고 내부 논란 확산

민주당이 5·4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강령 및 정강 정책을 제택할 예정인 가운데 당의 정체성과 노선 재정립을 놓고 내부 논란이 확산될 분위기다.

당내 친노·주류 층은 현행 유지 기류가 강한 반면 비주류 일각에서는 중도를 기반으로 전면 수정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치열한 논쟁의 핵심은 강령에 서의 '중도주의' 부활 여부다.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중도개혁주

의였지만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시민사회와 결합한 정당으로 출범할 때 이 용어 자체가 삭제됐다. 대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가 민주당의 지향점으로 제시됐다.

중도주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당이 작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경당과의 애원연대에 집착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좌클릭' 했고 이것이 대선 패배의 요인이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중도주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이끌어 낸 민주당의 정신인데다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민생이 정치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중도적 측면에서 세상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차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중도주의를 외면한다면 결코 정권을 장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달 워크숍에

서 국회의원, 당무위원, 지역위원장 등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보면 당 정체성으로 중도적 색

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5.9%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현재의 노선 유지와 진보적

색채 강화는 각각 29.5%, 13.1%였다.

그러나 대선 패배의 원인은 당 정체성이 아닌 선거 전략의 실패에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복희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은 진보를 내세우며 '빨갱이'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중도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대선 패배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의 노선 정비작업은 같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산하 강령·정책 분과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분과위는 다음 주부터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해외사례, 자료 취합 과정을 거쳐 4월말까지 잠정안을 도출키로 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 국무총리실 토착·인허가비리 감찰 강화키로

총리실은 토착비리와 인·허가 비리 등의 민생과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복무관리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또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사업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집검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각 부처별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했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경마한 실수를 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징계 감면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불만 토로하는 민주 수석부대표

누리당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문 해석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우원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새

/연합뉴스

## 오늘 광주서 '군공항 이전특별법' 통과 보고대회

### 대구·수원 등 1000여명 참석

광주와 대구·수원의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보고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김동철·강기정·임애현·박해자 국회의원과 군 공항 소을 피해지역인 대구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 수원의 김진표·신장웅 의원 등도 참석한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설명회에는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구인 광주 서구 갑과 광산 갑 당원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었다.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는 광주와 대구, 수원 지역 주민들이 상대 지역에서 열리는 '군 공항 이전 집회'에 '풀이터'로 참석하는 것은 조속한 군 공항 이전을 정부에 촉구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정희 통진당 대표

### 오늘 전남대서 강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2일 오후 4시 전남대 응지관 컨벤션홀에서 전남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강연을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학생,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우뚝 서다'라는 주제로 대학생이 처한 현실과 역할, 진보정치의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전남대 총학생회, 조선대 교육희망찾기 운동본부, 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강연 후에는 김재연 의원과 학생들의 티타임이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기자 노트

### '부실' 산단조성의 또 다른 이면

"자체의 무리한 산단 조성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부실한 지방자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0여 년간 지역개발학을 연구하고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한교수의 말이다. 전남지역 시·군들이 왜 고금리를 줘워며 허술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정 상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천문학적인 협세를 업체들에게 내맡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사슬처럼 엮여 있는 관계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중앙정부가 대부부의 권한을 여전히 독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소한 사무를 넘기며 재정을 일부 보조한다. 지역주민들의 삶에 자체의 결정보다 중앙정부의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체는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 지역을 정약하고 소수의 조직회된 '꾼'들이 동원된 선거에서 단체장이 탄생한다. 그 단체장은 민의에 상관없이 정당 공천에 몰두한다. 본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수도권의 극심한 집중은 이러한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이 교수는 "지역이 망하는 맘든 중앙정부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불그스름, 단체장은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책임지는 자세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체는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도, 단체장도, 담당 공무원도 외면하고 있다.

이 교수의 걱정은 커 보였다. 지방자치는 거울을 수 없는 명제이며, 세계화 속에 국가의 경쟁력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난마처럼 얹히고 설킨 산단조성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개발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단체장,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사회2부 차장

##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 정적 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상품을 도입할 것 ▲ 보험운영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포함됐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삼희공인중개사

- 상가건물전분■
- ◆10억부터 50억이상◆
- 급매물 본사 당일계약!
- ◆경매 진행 중 부동산◆
- (추하 및 매입가능)
- ◆상속부동산/지분부동산◆
- ◆모든부동산 출장가능!

### 매매

- \* 서구 치평동 이마트 4층상가로변 5층건물 대지860.3세대(1260평) 건 3,047제곱미터(922평) 지하1층/지상5층/ 대출금(24억) / 매매가(38억 보증금5억2천평)/ 월세 2700만/전면儿별도 실무자금 8억8천만/실수익률 16.5%
- \* 동구 동명동 조선대후문 인근 6층고시원 엘리베이터 대지236제곱미터(71.5평)/도로(14평) 냉72개 건373제곱미터(221평)/대출(297천만) 매매가(14억5천만) 실무자금 1억8천만/ 직영시 수익률 000%
- \* 북구 문흥동 6차선대로변지 1층/지상7층 4층집합건물 건727제곱미터(분양350평) 병원, 한의원, 독서실 찜질방가능 대출금(6억)/ 매매가(6억5천만)/실투자금 5천만 매입후 분할임대시 수익률 000%

### 임대

- \*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건330제곱미터(100평) 보3억/월2200만
- \* 서구 치평동 이마트 인근 4층 사무실 건494.49제곱미터(170평)

### 상가 투자자, 매수자 상담회

투자회원모집(약간명)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상이 즐겁습니다.

## 신한공인중개사

### 신축원룸매매전문

- ★전대정문 1분 룸 14개 월수익 500만원 매기6억2천
- ★전대상대, 농대 1분 룸 14개(상기1개) 월수익 500 매기5억9천
- ★전대정문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가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융 2억5)
- ★전대정문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 매기8억8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융 8천)
- ★상층동 신축원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기5억9천
- ★상층동 원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기6억9천
- 상층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광동간도로접 820㎡ 매기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 수원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분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도서실·모든업종가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기3억6천(보3천 융10만)
-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기3억3천(보3천 융180)
- 독서실 금 임대
- 수원지구 3층세대 모아월가 APT후문 2층 91㎡ 최신식 사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비(약간있음)
- ☎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주구 수원동 L.G전자빌딩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 2890㎡ 감정가29억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850㎡ 건평 1146㎡ 감정가11억 최저가74억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

▶무안군 현경면 단독주택 대지660㎡ 건평96㎡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

### 단독 주택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

### 단독 주택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